

부산시, 권역별 5대 혁신클러스터 조성… 미래산업으로 확장

산업 포트폴리오, 멜팅팟 육성
마운틴밸리·수영강벨트 등
기장군서 신성장동력 창출과
디지털 혁신 지속해 나갈 것

부산의 산업지도가 해방이후 지속
돼 온 서부산권 제조업과 동부산권인
해운대·센텀의 관광·정보통신(IT) 산
업 구조에서 동부산-원도심-서부산
곳곳에서 기존 주력 산업과 연계한 미
래산업 혁신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
확장되고 있다고 부산시가 1일 분석,
발표했다.

시는 권역별 5대 혁신클러스터를 조
성하고 산업 포트폴리오를 신산업의
멜팅팟(Melting Pot, 융광로)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산 전역에 새롭게 그려지는
미래 핵심 신산업을 5대 혁신클러스
터로 설명했다. 동부산의 마운틴벨
리, 수영강벨트, 원도심의 스타트업



부산시청.

벨트, 부스트벨트, 서부산의 낙동강
벨트가 그것이다.

동부산권은 기장군 쪽으로 북동진
하며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등 부산
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새롭게 창출함
과 동시에 디지털 혁신도 지속해 나가
고 있다는 분석이다.

방사선의과학·이-파크(E-Park)
산업단지들을 시는 '마운틴 밸리'로
명명했다. 이곳은 금양, 에스티아이

등 우수기업의 신산업 투자가 이어지
고 있으며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등 4
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산단으로 탈
바꿈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방사선의과학산단은 전력반
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8000
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등 7조원 대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화상태에 있는 센텀시티로부터
시작해 유니콘타워와 센텀2지구를 잇

는 '수영강 벨트'는 확장현실(XR),
메타버스 등 기존 정보통신기술(IC
T) 산업의 고도화와 센서·로봇 등 디
지탈 하드웨어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면-문현-북항-영도를 잇는 원
도심권은 도심형 친수공간으로 청년
창업 특화 공간이자, 스마트 금융과
해양신산업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고 시는 밝혔다.

서면·부산역·북항을 잇는 지역에는
'스타트업 밸리'가 구축되고 있으며,
민간 주도 '개방형 혁신창업타운',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청년창업 디
지탈 허브 조성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는 설명이다.

이같은 신산업 지도 개편은 지산학
협력브랜치 68곳을 중심으로 한 우수
한 인재 양성이 뒷받침 돼 활력을 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교육청

포항·구미도서관 건립 나서

포항·구미도서관 건립사업이 교육부-행
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경북교육청은 27만여 명의 포항시 북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가칭)경상북도교
육청 포항도서관 건립으로 1990년 개관한 영
일도서관의 시설 노후화 및 공간 협소, 지진
피해에 따른 건물 균열 등 안전 문제를 해소
하게 됐다.또, 건립 예정지 반경 2km 이내
12개의 학교와 3만 6000여 세대의 인구 밀집
지역에 독서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부산 남구-동명대

봉사단과 치매사각지대 해소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부산 남
구와 동명대학교의 아름다운 동행이 결실을
보고 있다. 동명대는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으로 구성된 치매전문자원봉사단 '동치미'
가 어르신 맞춤형 전문봉사단으로 다양한 나
눔을 진행하고 있다.이들은 맞춤형 사례 관
리 대상 어르신 가정을 2인 1조로 방문해 월
2회 안부 확인, 인지재활 프로그램, 말벗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일파티지원단은
월 2회 방문해 '함께여서 행복한 생일' 생일
축하 노래 부르기, 선물 전달하기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전남도

“전남에서 일·휴가 동시에 즐기세요” 블루위케이션 시범사업 본격 운영

전남 대표 융복합 관광상품 육성 여수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전남도가 천혜의 섬·해양·산림 자
원과 맞닿은 남도음식을 결합한 '전
남블루 위케이션 프로그램'을 선보인
다. 위케이션은 일(Wokr)과 휴가(V
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다.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전남블루 위케이션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
한다.

전남도는 시범 운영을 통해 2024년
정식 운영 세부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
하고 전남 대표 융복합 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지난 9월 시.군
공모를 진행한 결과 여수시가 위케이

션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위케이션 흥
보.유치를 위해 서울경제진흥원, 산
단 입주기업협의체, 호텔 등과 협약
을 체결하고 오는 11월부터 시범 프로
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전남블루 위케이션은 '수요자 맞춤
형'과 '테마별 맞춤형'으로 나뉘 운영
한다.

수요자 맞춤형은 엠지(MZ)세대를
 겨냥해 도심형과 40~50대 가족중심
형으로 준비했다.

테마 맞춤형은 지역 인기 관광지와
미식, 레포츠 등을 즐기는 관광지형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일
을 병행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
G)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운영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대, 3D 바이오프린팅 인공피부 제작

대량생산으로 동물실험 대체 가능

동물권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량생산이 가능한 인공피부
제작에 성공해 동물 실험을 대체할 피
부 모델 연구 전망이 밝아졌다. 부산
대는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의생명융
합공학부 김병수 교수팀이 포항공대
와 중국 베이징 이공대와와 공동 연구
를 통해 3D 바이오프린팅을 통한 피
부 표피층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고 1
일 밝혔다.

김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바
이오프린팅 기술로 피부 각질층이 구
현된 인공피부 구조체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바이오프린팅'은 살아있는 인공조
직을 실제와 같은 형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다.

인공피부 제조에는 각질세포를 피
부 위에 단일 층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필수적인데, 연구팀은 이를 위해 각
질세포를 포함하는 젤라틴을 바이오
잉크(3D 바이오프린터를 통해 분사
되는 재료의 통칭)로 사용했다.

연구팀은 체온 범위 내에서 성질이
변화하는 젤라틴의 특성을 이용해 프
린팅 과정에서는 젤 형태가 유지되도
록 온도를 낮게 유지해 프린팅하고, 프
린팅 후에는 인공피부를 37도에서 배
양해 젤라틴이 녹아 없어지도록 했다.
즉, 젤라틴은 녹아 없어지고 각질
세포로만 이뤄진 단일 층이 피부 위에
남게 돼 인공피부 모델의 핵심인 각질
화 된 표피층 재현이 가능해졌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남도, 지방소멸기금 투자사업 선정

생활거점 2개소·활력공간 11개소

경상남도(도지사박완수)는인구감
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
계정 투자사업으로 '지역 특화형 생
활거점' 2개소와 '지역활력공간' 11개
소를 선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사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2022년부
터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기금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군
공모를 통한 지역생활거점 중심의 투
자모델을 발굴하고,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시군의 공동과제사업을 추진하
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특히,
시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
한 전문가들의 사전 컨설팅과 함께 외
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

하여, 공정하면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한 선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기
금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
에 따라 최대 3년간 안정적으로 기금
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형 생활거점'은 시군이
보유한 자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
자리·주거·생활서비스의 선순환이 가
능한 생활속 활력공간을 만드는 사업
이다. 2024~2026년 3년간 최대 200억
원이 지원되며, 통영시의 '통영영 수
국(水國) 프로젝트'와 함양군의 '함양
사계 포유(for you)'를 선정하였다.

고유자원과 유류공간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군에서는 추진방향에 맞춰
사업을 구상하여 제출하였으며, 도에
서는 평가를 통하여 11개소 사업을 선
정하였고, 개소당 최대 5억 원의 사업
비를 2024년에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장병호 기자 metrobusan1@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14년 만에 해제

상인들, 상권 회복 기대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
부 구간이 14년 만에 해제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조정된 구간은 중
앙로 북편구간인대구역네거리~중앙
네거리 0.45km다. 그동안 시내버스외
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됐으나 1일부
터 모든 차량 통행이 허용됐다. 중앙

로 남편구간인 반월당~중앙네거리
0.6km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이날 오후 1시께 대구시 중구 대중
교통전용지구. 북편구간 통행 재개
소식에 상인들은 환영 현수막까지 걸
어가며 기쁨을 표현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 구간 해제
소식에 상인들은 상권 회복을 기대하
는 분위기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광주시

내년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광주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전용차량 법정대수를 내년까지 100% 도입
하는 한편 차량 1대당 운전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
르면 지자체는 휠체어 탑승리프트가장착된
전용차량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운행해야 한다.

시행 규칙에 따라 시는 전용차량을 128대
운행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는 법정도입 기
준에서 2대 부족한 126대를 운행하고 있다.

내년 본예산 확보를 통해 1대를 추가 도
입, 법정대수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광주=양수영 기자